

2020년대 이후 남성향 웹소설 원작 드라마 캐릭터 분석 - 보글러의 ‘원형’ 모델을 기반으로

이민규*

1. 서론
2. 작품별 캐릭터 원형 분석
 - 2-1. <재벌집 막내아들>
 - 2-2. <중증외상센터>
3. ‘완성된 영웅’ 중심 서사의 의미와 효과
4.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2020년대 이후 남성향 웹소설 IP가 영상 콘텐츠 산업에서 급부상하는 현상에 주목하여 해당 영상 콘텐츠에 나타난 캐릭터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크리스토퍼 보글러의 원형(archetype) 모델을 분석 틀로 설정하고, 남성향 웹소설 IP가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드라마 매체를 중심으로 JTBC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2022)과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2025)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두 작품의 영웅은 서사 초입부터 결함과 성장의 과업이 최소화된 ‘완성된 영웅’으로 제시되며, 갈등이 장기화되지 않고 신속하게 해소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 과정에서 영웅은 ‘정신적 스승’ 원형의 기능을 내재화하는

* 동국대학교 영화영상제작학과 연출/시나리오 전공 박사 수료

반면 대적자는 영웅을 치명적인 위기로 몰아넣는 ‘그림자’의 극적 기능이 약화되고 단계별 시험을 부과하는 ‘관문수호자’로서의 기능이 부각된다. 또한 ‘협력자’와 ‘장난꾸러기/익살꾼’ 원형 등은 독립적인 서사 동인으로 기능하기보다 영웅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장치로 단순화된다.

이 같은 원형 변용은 남성향 웹소설 독자층이 선호하는 즉각적인 성취 제시와 빠른 갈등 해소라는 서사 전략이 영상 콘텐츠에서도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IMF 이후 심화된 노력 담론의 균열과 청년층의 허무주의 및 보상 욕구의 확대, 숏폼 콘텐츠 소비 환경의 확산과 같은 사회, 문화적인 맥락과 맞물려 이해될 수 있다.

(주제어: 남성향 웹소설, 웹소설 원작 드라마, 원형, 완성된 영웅, 도구화)

1. 서론

2020년대 들어 한국 영상 콘텐츠 산업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웹소설 원작 영상 콘텐츠의 급격한 확산이다. JTBC <재벌집 막내아들>(2022)이 성공을 거둔 이후 tvN <선재 업고 튀어>(2024), 넷플릭스 <중증외상센터>(2025)와 같은 웹소설 원작 드라마가 연이어 대중의 호응을 얻었고, 웹소설 <나 혼자만 레벨업>(2016)을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은 미국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¹⁾를 거두었다. 웹소설 원작 활용 비중이 낮았던 영화계에서도 비록 흥행에는 실패했으나 웹소설 원작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2025)이 제작되며 웹소설 IP의 영향력이 전 매체로 확산되는 양상을

1) Leo Reyna, “Sony Confirms Solo Leveling as Most-viewed Crunchyroll Anime of All Time”, *CBR* 2025.6.16., <https://www.cbr.com/solo-leveling-most-viewed-anime-of-all-time/>. (접속일: 2026.2.2.).

보이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인 곳은 드라마 산업이다. 각색 미니시리즈의 원작 출처를 보면, “2021년~2024년 시기에 웹소설이 드라마 원작으로서 비율이 점차 늘어나 2024년에는 25%에 달하며 웹툰을 추격”²⁾했다. 2010년대까지만 해도 비주류에 머물렀던 웹소설 IP는 오늘날 웹툰과 함께 드라마 각색 시장의 주요 원천으로 자리매김했다.

웹소설이 본격적으로 태동한 2010년대에도 웹소설 IP는 일정한 수요를 보여왔다.³⁾ 그러나 이 시기에 영상화된 웹소설의 상당수는 이른바 ‘여성향’에 속했으며, ‘남성향’⁴⁾ 웹소설은 2020년대 이전까지 영상 콘텐츠로 제작된 사례가 극히 드물었다.⁵⁾

남성향 웹소설 IP가 영상 콘텐츠 산업에서 소외된 주요 원인은 로맨스 장르가 중심인 여성향 웹소설과 달리 남성향 웹소설이 현대판타지, 무협

2) 김미숙, 「각색 미니시리즈의 제작 현황에 따른 드라마 작가의 '각자도생'적 생산 문화 -2021~2024년 원작 출처 및 장르 분석을 중심으로」, 『문화연구』 제13권 2호, 한국문화연구학회, 2025, 141쪽.

3) 지상파·케이블TV·종합편성채널 방영작 중 웹소설 원작 2010년대 드라마는 MBC <미스터 백>(2014), SBS <당신을 주문합니다>(2015), MBC <빛나거나 미치거나>(2015), tvN <신데렐라와 네 명의 기사>(2016), tvN <애타는 로맨스>(2017), tvN <김비서가 왜 그럴까>(2018), MBN <설렘주의보>(2018), MBC <이별이 떠났다>(2018), tvN <진심이 닿다>(2019), tvN <그녀의 사생활>(2019), KBS2 <저스티스>(2019)가 있다.

4) 본고에서 언급된 ‘여성향’과 ‘남성향’이라는 용어는 웹소설 산업 전반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온 용어를 차용한 것이다. 해당 용어들은 일반적으로 주인공의 서사적 목표를 구분하는 맥락에서 활용되어 왔다. 로맨스가 중심인 여성향 웹소설의 주인공이 ‘이상적인 인물과의 진실한 사랑의 결실’을 추구한다면, 현대판타지를 중심으로 한 남성향 웹소설의 주인공은 ‘사회적인 성공, 사회 구조적 부조리의 개선, 경제적인 보상 등의 성취’를 지향한다. (하철승, 「웹소설 원작 한국 TV 드라마의 서사와 영상 기법 -2013년 이후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방영 작품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59쪽~84쪽) 본고에서는 이러한 구분을 서사가 조직되는 방식과 주인공 목표 설정의 경향을 설명하기 위한 분석적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5) 현대판타지 장르인 KBS2 <저스티스>(2019)가 유일하게 ‘남성향’ 웹소설 원작 드라마에 속한다.

등 높은 제작비용을 요구하는 장르적 특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로맨스 장르의 드라마 산업에서 꾸준히 선호되어 왔는데, 이는 로맨스가 “제작비를 절감하면서도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르”⁶⁾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산업적 조건하에서 여성향 웹소설은 제작 환경의 요구에 부합하여 2010년대 내내 웹소설 IP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요를 형성해 왔다.

그러나 2020년대에 들어 OTT 플랫폼의 대규모 투자 확대로 제작 환경이 변화하고, 남성향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JTBC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2022)이 흥행을 거두면서 남성향 웹소설은 새로운 서사 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여성향 웹소설과 달리 남성향 웹소설 IP의 영상화는 2020년대 초반에 들어서야 본격화되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시기적 전환기에 등장한 남성향 웹소설 원작 영상 콘텐츠의 캐릭터를 분석함으로써 동시대 서사 경향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를 위해 남성향 웹소설의 주요 서사적 특징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참고했다.

먼저 최지운은 대표적인 남성향 웹소설 장르인 ‘회귀물’을 심도 있게 고찰했다. 그는 ‘회귀물 장르가 궁극적으로 시청자가 기대하는 캐릭터나 스토리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수렴한다는 점’⁷⁾을 규명했다. 최재용은 ‘웹소설 서사의 핵심 요소인 사이다 추구 현상에 대해 한국과 중국 인터넷 소설을 비교하며 그 구체적인 양상과 사회적 맥락’⁸⁾을 조망했다. 또한 김나은은 ‘웹소설 서사가 동시대 젊은 세대의 절망감과 노력 불신, 그리고 일확천

6) 김미숙, 앞의 글, 149쪽.

7) 최지운, 「TV드라마 속 회귀물의 함의 연구 : 〈어게인 마이 라이프〉와 〈재벌집 막내아들〉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제68호, 인문콘텐츠학회, 2023, 144-145쪽.

8) 최재용, 「한중 인터넷 소설 속 갈등해결 양상 비교 - ‘사이다’ 추구 현상을 중심으로」, 『중국문학연구』 제85호, 한국중문학회, 2021, 186쪽.

금의 가치관을 통한 독자의 대리 만족 양상⁹⁾을 논의했다.

다음으로는 웹소설 매체의 TV 드라마 각색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참고했다. 하철승은 '웹소설 원작 한국 TV 드라마의 서사와 영상 기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웹소설 매체 전환 연구의 토대'¹⁰⁾를 마련했고, 김경애는 '새로운 콘텐츠의 원천 소스로서 웹소설의 전용 과정'¹¹⁾에 대해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JTBC <재벌집 막내아들>(2022)과 넷플릭스 <중증외상센터>(2025)로 선정했다. 영상 콘텐츠 가운데 드라마를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웹소설이 수백 회에 달하는 연재 형식을 기반으로 한 매체로서 장기적 서사 전개를 전제로 하는 드라마 형식과 구조적으로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웹소설 IP는 드라마 매체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었으며, 그 성과 또한 다른 영상 매체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재벌집 막내아들>은 남성향 웹소설 원작 드라마가 주류로 부상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중증외상센터>는 넷플릭스를 통해 남성향 웹소설 IP가 글로벌 OTT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두 작품은 배경과 설정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남성향 웹소설의 전형을 명확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분석 대상으로서 타당성을 지닌다.

9) 김나은, 「현대 판타지 웹소설 흥행요인 분석: 『재벌집 막내아들』 사례를 중심으로」, 『글로벌문화콘텐츠』 제60호,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24, 58-59쪽.

10) 하철승, 앞의 글, 148-151쪽.

11) 김경애, 「웹소설의 전용과 재매개 양상 연구-『구르믈 그린 달빛』의 드라마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21권 4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7, 435-436쪽.

2. 작품별 캐릭터 원형 분석

본고의 방법론적 틀로는 크리스토퍼 보글러가 조셉 캠벨과 칼 융의 이론을 토대로 체계화한 원형(archetype) 모델을 활용하고자 한다. 보글러에 따르면, “원형의 개념은 스토리에서 캐릭터의 존재 의의나 기능을 이해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도구다.”¹²⁾ 특히 웹소설이라는 뉴미디어 서사는 캐릭터 중심 전개 방식을 보이므로 원형을 분석하는 작업은 캐릭터적 특성은 물론 서사 구조를 함께 조망하는 데 유효한 접근이 된다.

〈표 1〉 크리스토퍼 보글러의 원형 8가지¹³⁾

유형	극적 기능
영웅 (Hero)	관객의 동일화
	성장
	행위
	희생
	죽음을 대하는 태도
	다른 원형에서의 영웅주의
	캐릭터의 결점
	영웅의 다양성
	자발적 영웅/비자발적 영웅
	반(反)영웅
	집단 지향의 영웅
	고독한 영웅
	축매 역할을 하는 영웅
	영웅의 길

12) 크리스토퍼 보글러, 『신화, 영웅 그리고 시나리오 쓰기』, 함춘성 역, 비즈앤비즈, 2013, 62쪽.

13) 위의 책, 64쪽.

정신적 스승 (Mentor)	가르침
	권능의 부여
	신화에서의 권능
	페르세우스
	대가를 지불해야 얻는 권능
	발명가로서의 정신적 스승
	영웅의 도덕적 판단 능력
	동기부여
	심기
	성에 눈뜨게 함
	정신적 스승의 유형
	악한 정신적 스승
	주저앉은 정신적 스승
	반복 등장하는 정신적 스승
	여러 명의 정신적 스승
	희극적인 정신적 스승
	샤먼 역할을 하는 정신적 스승
	정신적 스승 원형의 융통성
	내면화된 정신적 스승
	정신적 스승이 나타나는 때
관문 수호자 (Threshold guardian)	시험하기
	새로운 힘의 표식
전령관 (Herald)	동기부여
변신자재자 (Shapeshifter)	의심과 불확실 부여
	변신자재자의 가면
그림자 (Shadow)	대적자
	그림자의 가면
	인간미를 갖춘 그림자
협력자	여러 명의 협력자

(Ally)	문학에서의 위대한 협력자
	특별한 세계로의 안내
	서부극에서의 협력자-보조자
	사람이 아닌 협력자
	협력자 역할을 하는 동물
	무덤에서 나온 협력자
	도움을 주는 하인
장난꾸러기/익살꾼 (Trickster)	웃음으로의 해우
	장난꾸러기 영웅

2-1.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문피아에서 연재된 동명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재벌집 막내아들>은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JTBC에서 방영된 16부작 드라마로, 최고 시청률 26.9%를 기록하며 역대 비지상파 드라마 시청률 2위¹⁴⁾를 차지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영상 콘텐츠 시장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던 남성향 웹소설 IP가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보글러에 따르면, ‘영웅’ 원형은 “스토리가 시작하는 단계에서 영웅과 동일화를 이루어 한 몸이 되고, 영웅의 눈으로 스토리의 세계”¹⁵⁾를 바라보도록 이끄는 극적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그는 영웅이 “결점이 없거나 예측 불가능한 면이 전혀 없는 스테레오 타입의 존재여서는 안 된다”¹⁶⁾며, 영웅의 결함이 지닌 서사적 중요성을 역설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재벌집 막내아들> 속 ‘영웅’인 진도준(송중기)에게

14) 닐슨 코리아에서 집계한 유료 가구 기준 수치로, 역대 비지상파 시청률 1위는 28.3%를 기록한 JTBC <부부의 세계>(2020)다.

15) 크리스토퍼 보글러, 앞의 책, 68쪽.

16) 위의 책, 69쪽.

는 보글러가 말한 결함이 부재하다. 흡수저 출신 윤현우에서 재벌집 손자로 '회귀'¹⁷⁾한 그는 미래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간다. 그가 직면하는 위기는 내적 결함보다는 외부 환경에 의해 촉발되는데, 이때 이 위기는 장기화되지 않으며 영웅의 역량을 통해 비교적 단기간 내에 해결된다.

주목할 점은 초반부 서사를 추동하던 진도준의 '가족에 대한 결핍'이 점차 서사의 전면에서 물러나고 '순양그룹 인수'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새로운 동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주인공을 '외부 압력에 떠밀려 모험에 나서는 비자발적 영웅'에서 벗어나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는 자발적 영웅'¹⁸⁾으로 규정짓는 전환점이 된다.

이 지점에서 그는 '영웅'의 원형을 확장하여 '정신적 스승'이라는 또 다른 원형을 체현한다. '정신적 스승' 원형의 극적 기능은 '가르침'의 제공에 있으며, 이는 통상적으로 영웅의 각성을 촉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진도준은 이미 '완성된 영웅'으로서 서사에 등장하기 때문에 별도의 '정신적 스승'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오히려 주변 인물들에게 '가르침'을 제공하며 그 자신이 '정신적 스승' 원형의 기능을 겸한다.

진도준이 이처럼 '완성된 영웅'으로 기능할 수 있는 원인은 '회귀'라는 초월적 서사 장치에 있다. 작중에서 영웅의 모험을 촉발하는 '전령관' 원형의 기능은 '회귀'라는 비인격적인 힘이 담당한다. 보글러가 "전령관은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힘일 수도 있다"¹⁹⁾고 언급한 것처럼, 이 미지의 힘은 인격체를 대신해 진도준에게 모험의 동기를 제공한다.

17) 회귀물은 오늘날 웹소설의 대표적인 하위장르 중 하나로서 "주인공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자신이나 타인의 예전 인생을 다시 살게 되는 스토리를 담아낸다." (최지운, 앞의 글, 135쪽)

18) 크리스토퍼 보글러, 앞의 책, 73쪽.

19) 위의 책, 96쪽.

작중 그가 보여주는 우월한 역량은 미래 정보의 선취(先取)에서 기인한다. “그는 미래를 알기에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십분 활용했다.”²⁰⁾ 진양철(이성민)로부터 인정받는 계기가 된 제13대 대통령 선거 결과의 사전 예측이나 미라클 투자전문회사 설립의 기반이 된 오세현(박혁권) 대표 영입 사례 등은 그가 미래 정보를 독점하고 있어 가능한 성취였다. 진도준은 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지속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우월성을 입증하는데, 이는 그가 기존의 영웅 서사와 달리 결정적인 시련에 직면하지 않는 개연성으로 작용한다.

‘영웅’과 대립하는 ‘그림자’ 원형은 순양그룹 회장 진양철에 의해 구현된다. 그는 주인공에게 고강도의 시련을 부과하는 주요 대적자로 위치하지만, 동시에 단일한 원형에 고착되지 않고 ‘그림자’ 원형과 ‘협력자’ 원형을 넘나드는 ‘변신자재자’로서 “스토리에 의심과 불확실을 불어넣는 극적 기능”²¹⁾을 수행한다.

흥미로운 점은 진양철이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로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진도준을 치명적 위기로 몰고 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림자’ 원형의 극적 기능은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영웅을 삶의 절대적 기로에 처하게 함으로써 영웅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도록”²²⁾ 만드는 데 있다. 그러나 진도준은 일시적 갈등 국면을 겪을 뿐 진양철에 의해 ‘삶의 절대적 기로’에 처하지 않는다. 진양철은 오직 진도준에게 자극과 동력을 제공하는 자양분적 역할을 수행한다.

결국 진양철의 극적 기능은 진도준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도구적 장치로

20) 최지운, 앞의 글, 141쪽.

21) 크리스토퍼 보글러, 앞의 책, 101쪽.

22) 위의 책, 106쪽.

축소되며, 영웅을 실질적 위기로 몰아넣는 본래의 '그림자' 원형의 역할은 온전히 수행되지 못한다. 특히 서사 후반부에서 협력자로 변모하여 진도준의 목적 실현을 지원하는 양상은 그가 진도준 중심 서사의 도구로 자리 매김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순양그룹 일가 역시 '그림자' 원형을 체현하는 또 다른 대상이다. 진윤기(김영재)와 이해인(정혜영)을 제외한 순양그룹 일가 대부분은 진도준의 목표를 방해하는 대적자로 기능한다. 그러나 이들 역시 고전 영웅 서사에서 규정한 '그림자' 원형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들은 진도준을 결정적 시련으로 몰아넣기보다는 진양철과는 또 다른 층위에서 진도준의 역량 입증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갈등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그림자' 원형의 일부 극적 기능을 공유하지만,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은 '관문수호자' 원형에 가깝다. 보글러가 “영웅을 시험하는 것은 관문 수호자가 수행하는 극적 기능”²³⁾이라고 정의한 바와 같이, 순양그룹 일가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진도준에게 일련의 시험을 부과하며 '관문수호자'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한다. 이 과정에서 순양그룹 일가가 제시한 시험들은 역설적으로 진도준의 역량을 조명하는 스포트라이트로 작동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순양그룹 일가는 독립된 캐릭터로서 고유한 매력을 보이지 못한다. 이들의 존재 이유는 진도준을 중심으로 한 서사를 뒷받침하고 그의 영웅적 면모를 부각하는 데 있으며, 이는 이들이 철저히 도구적 장치로서 설계되었음을 시사한다.

여타의 영웅 서사와 마찬가지로 진도준 역시 자신의 여정에서 협력자를 동반한다. 그러나 이들은 기존의 영웅 서사에서 보이는 협력자 원형과는

23) 위의 책, 91쪽.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협력자는 영웅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존재로 “동반자, 논쟁 상대, 양심, 웃음으로 긴장을 풀어주는 등 다양한”²⁴⁾ 역할을 수행한다. 〈재벌집 막내아들〉 속 협력자들 또한 이러한 기능을 일부분 담당하지만, 그들에게 부여된 핵심적 기능은 영웅의 성취에 ‘박수’를 보내는 데 있다.

진도준의 성취가 주는 카타르시스에 협력자들을 매개로 증폭되지만, 정작 이들은 사건 해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핵심 조력자인 오세현마저 진도준의 결정을 따르는 수동적 역할에 그친다. 결국 작중 협력자들은 진도준의 성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독자에게 각인시키는 도구적 기능에 한정되어 소비될 뿐이다.

이들에게는 또 하나의 원형이 있는데, 이는 ‘장난꾸러기/익살꾼’이다. 이들은 “웃음으로의 해우(解憂)”²⁵⁾를 실현하며 극의 긴장을 완화한다. 협력자들은 진도준이 지닌 영웅적 능력과의 극명한 대비 속에서 어리숙한 면모를 드러내거나 그의 성취에 과장된 반응을 보임으로써 희극적 효과를 형성한다. 이러한 양상은 ‘장난꾸러기/익살꾼’ 원형이 수행하는 극적 기능을 충실히 재현함과 동시에 진도준의 능력을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2-2. 드라마 〈중증외상센터〉

2025년 1월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중증외상센터〉는 웹소설 〈중증외상센터 : 골든 아워〉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로 공개 직후 높은 주목을 받았다. 한국 넷플릭스 오리지널 가운데 최초로 남성향 웹소설을 원작으로 제작된 해당 작품은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글로벌 TV쇼 비영어권 부문 1위

24) 위의 책, 110쪽.

25) 위의 책, 116쪽.

에 올랐고, 시청 시간은 8270만 시간”²⁶⁾에 이르는 성과를 기록했다. 이는 남성향 웹소설 IP가 글로벌 OTT 플랫폼에서도 경쟁력 있는 서사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열악한 환경의 한국대병원 중증외상팀을 재편하라는 ‘소명’을 부여받은 백강혁(주지훈)은 모든 외과 수술을 완벽히 집도하는 비현실적인 전능성을 보여준다. 명문대 중심의 한국대병원 교수진은 그의 지방대 학벌을 공격의 빌미로 삼지만, 외부에서 규정한 이 결함은 백강혁 본인에게 수용되지 않으므로 ‘결함’으로서 기능하지 못한다. <재벌집 막내아들>의 진도준처럼 ‘완성된 영웅’으로 묘사되는 그는 예리한 감각으로 타인이 포착하지 못하는 정보를 읽어내며 이를 기반으로 서사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갈등은 그의 실수나 한계에서 기인하지 않고 주로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그렇게 발생한 갈등은 단일 회차 내에서 신속히 해소되고 그 해결 과정 역시 전적으로 백강혁의 주도하에 전개된다.

백강혁의 ‘완성된 영웅’으로서의 면모는 또 다른 영웅인 양재원(추영우)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극적으로 조명된다. 한국의대 수석 출신인 양재원은 백강혁의 ‘협력자’이자 고전 영웅 서사의 ‘성장하는 영웅’으로 기능한다.

백강혁은 갈등 해결 과정에서 양재원에게 ‘가르침’을 제공하고 양재원은 이를 체화(體化)하며 성장한다. 그의 성장은 정신적 스승인 백강혁의 탁월한 역량을 증명하고, 이를 통해 백강혁은 진도준보다 한층 더 선명한 ‘정신적 스승’의 원형을 구축하게 된다. 즉, 고전 영웅 서사의 핵심 요소인 결핍의 극복과 성장의 과업은 백강혁이 아닌 양재원이 수행하며, 작품은 백강혁의 활약상과 양재원의 ‘영웅의 여정’이 공존하는 이중 구조로 확장된다.

26) 김희경, 「‘중증외상센터’의 글로벌 열풍 새 지평 연 한국 의학 드라마」, 『한경 BUSINESS』 1524호, 2025, (주)한경매거진앤북, 54쪽.

‘완성된 영웅’인 백강혁에게도 ‘그림자’ 원형의 대적자가 다수 존재하나, 이들 가운데 누구도 그를 치명적 위기로 몰아넣지 못한다. 대표적으로 함문외과 과장 한유림(윤경호)은 전반부에서 백강혁과 대립 구도를 형성하지만, 그가 야기한 갈등은 미시적 차원에 머무르며 결과적으로 백강혁의 역량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다만 한유림은 〈재벌집 막내아들〉의 순양그룹 일가처럼 평면적인 적대자로 고착되지 않는데, 이는 그의 캐릭터 원형이 ‘그림자’에서 ‘협력자’로 유기적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백강혁이 그의 딸의 목숨을 살린 사건을 기점으로 한유림은 ‘협력자’ 원형을 획득하고, 백강혁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인물로 재구성된다. 이러한 원형 전환은 여타의 서사적 장치들과 마찬가지로 백강혁의 영웅성을 강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 다른 대적자인 한국대학교 병원장 최조은(김의성)은 서사에서 일관되게 ‘그림자’ 원형으로 기능하다가 결말부에서 ‘협력자’ 원형으로 이동한 사례다. 작중 그는 중증외상팀 운영을 둘러싸고 백강혁과 반복적으로 충돌하며 제도적 차원의 압박으로 갈등을 유발한다. 그러나 백강혁이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배경에 과거 최조은이 그의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사명감을 지니고 끝까지 노력했던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최조은의 원형은 ‘협력자’로 전환된다. 백강혁의 고백은 최조은이 닥터헬기 도입을 승인하는 결정으로 이어지고, 이 시점에서 최조은은 ‘협력자’ 원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기능한다.

한유림과 최조은은 동시에 ‘관문수호자’의 원형도 겸한다. 서사 전개 과정에서 이들은 단계별 관문을 지키는 존재로 기능하는데, 초반부에서는 한유림, 중반부에서는 홍재훈(김원해), 후반부에서는 최조은이 그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은 각 단계에서 백강혁의 전진을 일시적으로 가로막지만, 끝내 백강혁에 의해 무력화되는 과정을 반복하며 주인공의 역량을 부각하

는 장치로 귀결된다.

중반부에서 '관문수호자'로 기능하는 한국대병원 기획조정실장 홍재훈은 작중 유일하게 '그림자' 원형에 고착된 인물이다. 여타의 '그림자' 원형 인물인 한유림과 최조은이 전개 과정에서 원형의 전환을 겪는 반면, 그는 마지막까지 일관된 대적자로 남는다. 이러한 고정적 극적 기능의 수행은 홍재훈을 작품이 설정한 핵심 대적자로 위치시키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홍재훈 역시 백강혁을 치명적 위기에 빠뜨리지 못한다. 그는 의료사고의 책임을 백강혁에게 전가하며 그를 궁지로 몰아넣는 듯 보이지만, 그 시도는 한 화도 지속되지 못한 채 곧바로 백강혁에 의해 무력화된다. 이후 오히려 본인이 경찰 수사를 받으며 몰락하고, 다른 인물들과 함께 백강혁의 능력을 부각하는 기능에 머무른다.

홍재훈이 조기에 서사에서 퇴장한다는 사실은 작품의 구조적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즉, 핵심 대적자의 존재조차 장기적 갈등을 형성하지 못할 정도로 이 작품의 갈등 강도가 최소화되어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3. '완성된 영웅' 중심 서사의 의미와 효과

〈재벌집 막내아들〉과 〈중증외상센터〉를 보글리의 원형 개념에 근거해 분석한 결과, 두 작품은 캐릭터 구성 측면에서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주요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표 2〉 크리스토퍼 보글러의 원형을 적용한 캐릭터 분석표

유형	캐릭터		극적 기능
	〈재벌집 막내아들〉	〈중증외상센터〉	
영웅 (Hero)	진도준	백강혁 양재원	관객의 동일화
			자발적 영웅
			축매 역할을 하는 영웅
정신적 스승 (Mentor)	진도준	백강혁	가르침
			동기부여
관문 수호자 (Threshold guardian)	순양그룹 일가	한유림 홍재훈 최조은	시험하기
전령관 (Herald)	회귀	천부적 재능	동기부여
변신자재자 (Shapeshifter)	진양철	-	의심과 불확실 부여
그림자 (Shadow)	진양철 순양그룹 일가	한유림 홍재훈 최조은	대적자
			그림자의 가면
			인간미를 갖춘 그림자
협력자 (Ally)	진양철 오세현 외	양재원 한유림 최조은 외	여러 명의 협력자
			특별한 세계로의 안내
			도움을 주는 하인
장난꾸러기/익살꾼 (Trickster)	오세현 외	한유림 외	웃음으로의 해우
			장난꾸러기 영웅

각 작품의 ‘영웅’ 원형에 해당하는 진도준과 백강혁은 공통적으로 ‘정신적 스승’ 원형을 함께 지닌 인물로 나타난다. 이들은 ‘관객의 동일화’라는

영웅의 전통적 극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만, 고전 영웅 서사의 필수 요소로 간주되는 '성장'의 과정은 결여되어 있다. 서사의 초입부터 '완성된 영웅'으로 제시된 이들은 갈등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주체성을 기반으로 한 현대적 영웅상으로 형상화된다.

이 같은 캐릭터는 “수많은 판타지와 무협 웹소설에서 자주 발견되는 ‘먼치킨’²⁷⁾으로 분류되는데, 웹소설 독자층에서는 일찍이 널리 통용되어 온 캐릭터 유형이다. 이른바 ‘먼치킨’으로 설정된 진도준과 백강혁은 뚜렷한 결함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정신적 스승’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스승의 역할까지 겸하며 주변 인물들에게 ‘가르침’을 제공하는 위치에 놓인다.

‘완성된 영웅’으로서의 위상은 영웅 개인의 역량뿐 아니라 그와 대립하는 인물들에 의해서도 형성된다. 두 작품에서 ‘그림자’ 원형을 지닌 대적자들은 보통 ‘관문수호자’ 원형을 함께 갖추고 있으며, 영웅의 전진을 잠시 가로막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에게서는 ‘그림자’보다 ‘관문수호자’ 원형이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는 영웅을 위기로 몰아넣는 극적 기능보다 영웅을 시험하는 극적 기능에 더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구성은 영웅의 ‘완전성’을 부각하기 위한 서사 구조에 기반한다. 이 때문에 대적자들은 영웅의 결점이 드러날 만한 위기 국면을 형성할 수

27) 최지운, 앞의 글, 140쪽.

28) ‘먼치킨’은 ‘성장하는 영웅’과 대비되는 능력적으로 완성된 캐릭터를 뜻한다. “2010년대 이후 각종 부조리와 갑질, 노오력 드립, 취업난, 열정페이 등에 시달리는 한국의 현실에서 독자들은 옛날처럼 주인공 굴리기 및 노력, 우정, 승리 같은 클리셰보다는 막막한 현실을 뺄 뚫어줄 사이다와 주인공 편익주의를 통한 대리만족에 열광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먼치킨 클리셰가 판타지 소설의 뉴노멀로 자리 잡았다.” (김나은, 앞의 글, 54쪽.)

없다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고전 영웅 서사 속 대적자들이 담당한 긴장 조성 혹은 위기 고조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한 채 영웅의 탁월한 역량을 드러내는 장치로서만 기능한다.

〈재벌집 막내아들〉과 〈중증외상센터〉 속 ‘전령관’ 원형의 기능은 ‘회귀’나 ‘천부적 재능’이란 비인격적 힘에 의해 대체된다. 이는 영웅이 타자에 의해 수동적으로 동기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동기화되는 방식으로 영웅의 능동성을 극대화하려는 장치다.

‘협력자’와 ‘장난꾸러기/익살꾼’ 원형 역시 기존의 영웅 서사와 비교할 때 영웅과 독립적으로 서사를 견인하던 극적 기능이 현저히 축소되어 있다. 두 작품에서 이들에게 부여된 주요한 기능은 영웅의 활약에 ‘박수’를 보내는 방식으로 영웅의 능력을 강조하는 데 있다. 이 같은 캐릭터 구성은 갈등의 심화보다는 영웅의 우월성을 반복적으로 확인시키는 방식의 서사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원형 변용은 2020년대 이후 남성향 웹소설 IP가 대중적으로 급부상한 배경과 연결해 해석할 수 있다. 김나은은 IMF 이후 심화된 ‘노력’ 담론의 붕괴가 청년층의 허무주의와 보상 요구를 확대시켰으며, 그 결과 독자들이 성장 서사보다 선천적 우월성을 지닌 ‘먼치킨’ 주인공을 선호하게 되었다고 분석한다.²⁹⁾ 이 같은 구조적 문제가 2020년대에 이르기까지 해소되지 않은 현실은 대리만족적 서사에 대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 등 짧은 호흡의 콘텐츠 소비에 익숙한 미디어 이용 환경 역시 해당 경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2024년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2023년부터 측정되기 시작한 숏폼 이

29) 김나은, 앞의 글, 54쪽 참조.

용률은 37.8%에서 42.2%로 증가하며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³⁰⁾ 짧은 호흡을 특징으로 하는 숏폼 콘텐츠는 웹소설이 회차당 약 5,000자 내외의 서사를 기본 구조로 삼고 제한된 분량 안에서 빠른 전개를 요구받는 구조적 특성과 상응한다.³¹⁾ 특히 남성향 웹소설의 대표 장르인 현대판타지는 영웅의 성취를 즉각적으로 제시하는 '사이다' 구간에 대한 독자의 선호에 힘입어 빠른 전개를 보이는데, 이는 숏폼 콘텐츠가 지닌 짧은 리듬의 서사 전개 방식과 부합한다.

웹소설 산업에서 '사이다'는 '먼치킨'과 마찬가지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서사의 갈등이 신속하게 해소되며 독자에게 즉각적인 쾌락을 제공하는 전개 방식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고구마'는 갈등의 해소가 지연되고 답답함을 유발하는 서사 전개를 지칭한다. 웹소설 연재 사이트에서 "텍스트 읽기를 그만두는 행위를 뜻하는 '하차'의 이유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고구마'"이다.³²⁾ 영웅의 성장을 강조하기 위해 반복적이고 과도한 시련을 부여하는 고전 영웅 서사는 독자에게 답답함을 유발하는 '고구마'적 요소로 인식되며, 현대 웹소설 독자층으로부터 외면받는 경향을 보인다. 남성향 웹소설 기반 '완성된 영웅' 중심 서사는 이러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즉각적인 쾌락을 제시하는 '사이다' 개념을 핵심으로 한다.

앞선 두 작품에서 확인되듯, 캐릭터 원형 변용이 '완성된 영웅'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양상은 반복적 시련과 점진적 성장을 전제로 한 고전적 영웅 서사로부터의 이탈을 보여준다. 이는 최근 대중 서사 전반이 즉각적인 성취와 빠른 갈등 해소를 중시하는 남성향 웹소설 서사 구조의 영향 아래 재

30) 한국언론진흥재단, 『2024 언론수용자 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 2024, 20쪽.

31) 하철승, 앞의 글, 73쪽 참조.

32) 최재용, 앞의 글, 191쪽 참조.

편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4. 결론

지금까지 〈재벌집 막내아들〉과 〈중증외상센터〉를 중심으로 남성향 웹소설 원작 드라마에서 캐릭터 원형이 어떠한 방식으로 변용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두 작품 속 주인공은 ‘완성된 영웅’으로서 제시되며, 주변 인물들은 이러한 영웅성을 부각시키는 도구적 역할에 머무르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남성향 웹소설 기반 서사는 2020년대 들어 급격히 확산된 릴스와 쇼츠 등 짧은 호흡의 영상 소비 환경, 그리고 답답함을 의미하는 이른바 ‘고구마’ 서사를 선호하지 않는 현대 청년층의 문화적 취향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한된 분량과 빠른 전개 속에서 독자의 몰입을 요구받는 웹소설의 특성상, 특히 ‘완성된 영웅’을 전면에 내세운 남성향 웹소설 기반 서사는 이 같은 사회, 문화적 맥락에 부합하는 서사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개별 작품에 대한 분석을 넘어서 남성향 웹소설 기반 서사가 주류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부상하고 있는 현상 자체를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분석은 현대 한국 대중 서사의 재편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를 제공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정대운, <재벌집 막내아들>, JTBC, 2022.

이도윤, <중증외상센터>, Netflix, 2025.

2. 논문과 단행본

김경애, 「웹소설의 전용과 재매개 양상 연구-『구르믈 그린 달빛』의 드라마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77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7, 418-439쪽.

김나운, 「현대 판타지 웹소설 흥행요인 분석 : 『재벌집 막내아들』 사례를 중심으로」, 『글로벌문화콘텐츠』 제60호,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24, 45-61쪽.

김미숙, 「각색 미니시리즈의 제작 현황에 따른 드라마 작가의 ‘각자도생’적 생산 문화 -2021~2024년 원작 출처 및 장르 분석을 중심으로-」, 『문화연구』 제13권 2호, 한국문화연구학회, 2025, 123-172쪽.

하철승, 「웹소설 원작 한국 TV 드라마의 서사와 영상 기법 -2013년 이후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방영 작품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최재용, 「한중 인터넷 소설 속 갈등해결 양상 비교 - ‘사이다’ 추구 현상으로」, 『중국문학연구』 제85집, 한국중문학회, 2021, 186-217쪽.

최지운, 「TV드라마 속 회귀물의 함의 연구 : <어게인 마이 라이프>와 <재벌집 막내아들>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제68호, 인문콘텐츠학회, 2023, 134-150쪽.

크리스토퍼 보글러, 『신화, 영웅, 그리고 시나리오 쓰기』, 함춘성 역, 비즈앤비즈, 2013.

3. 기타자료

Reyna Leo, “Sony Confirms Solo Leveling as Most-viewed Crunchyroll Anime of All Time.” CBR, 2025.6.16., <https://www.cbr.com/solo-leveling-most-viewed-anime-of-all-time/>. (접속일: 2026.2.2.)

한국언론진흥재단, 『2024 언론수용자 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 2024.

Abstract

Character Archetypes in Male-Oriented Web-Novel-Adapted Korean Dramas Since the 2020s - Based on Vogler's Archetype Model

Lee, Min-Gyu(Dongguk University)

This study focuses on the rapid rise of male-oriented web-novel intellectual properties (IPs) in South Korea's screen-content industry since the 2020s. It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 archetypes manifested in such screen adaptations and to identify the narrative tendencies that characterize this contemporary shift. For this purpose, Christopher Vogler's archetype model is adopted as the main analytical framework. Concentrating on television/streaming drama—the medium in which male-oriented web-novel IPs have achieved the most visible success—this study examines JTBC's <Reborn Rich>(2022) and Netflix's <The Trauma Code: Heroes on Call>(2025).

In both dramas, the hero is presented from the outset as a “completed hero,” for whom flaws and the task of growth are largely minimized; accordingly, conflicts tend not to intensify over an extended period but are resolved swiftly. In this process, the hero internalizes the function of the Mentor archetype, whereas antagonists display a weakened Shadow function that would ordinarily drive the hero toward a decisive crisis; instead, their role is foregrounded as that of Threshold Guardians who impose step-by-step tests. Furthermore, archetypes such as the Ally and the Trickster are simplified, functioning less as independent narrative engines than as reactive devices that reinforce the hero's superiority.

This type of archetypal transformation suggests that narrative strategies favored by male-oriented web novel readership—namely, the presentation of immediate achievement and the rapid resolution of conflict—also function

effectively within audiovisual content. This phenomenon can be understood in relation to broader social and cultural contexts, including the fragmentation of effort-based discourse following the IMF crisis, the intensification of nihilism and compensatory desires among younger generations, and the expansion of short-form content consumption environments.

(Keywords: male-oriented web novels; web-novel-adapted dramas; archetype; completed hero; instrumentalization)

논문투고일 : 2025년 12월 24일

심사완료일 : 2026년 1월 27일

수정완료일 : 2026년 2월 8일

게재확정일 : 2026년 2월 14일